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영동지부



▲영동지부는 항상 회원들과 축산관계자들로 붐빈다. 좌측 3번째가 배상수 영동지부장, 맨 우측이 정영철 총무

경 부선을 타고 서울을 2시간 남짓 벗어나다 보면 어느덧 큼직큼직한 건물들이 간데 없어지고, 기차 여행다운 주위의 풍경이 펼쳐지기 시작한다.

잔뜩 높아진 하늘에 겨울의 느낌을 풍기는 산들과 물맑은 금강이 스치듯 지나가고, 시끌벅적한 경부 고속도로와 떨어진 곳으로 열차가 달려가다 보면 아담한 영동역이 나온다.

역전에 발을 디디면 영동읍내의 고향같은 분위기가 무거운 카메라의 느낌마저 무디게 한다.

그리 큰 도시는 아니지만 이 곳 영동군에서 우리 양돈협회 영동지부는 양돈인들 각각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돈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지역 양돈가들의 구심점이 되어 양돈농가들을 이끌어가고 있다.

많지 않은 지역 양돈인들이 서로 신뢰감 쌓아

86년 3월 16일에 설립된 충청북도 영동지부는 어느덧 12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초대 서정철 지부장에 이어 88년 6월부터 현재의 배상수 지부장이 지부를 이끌어 오고 있다.

영동은 전체 양돈농가가 100여호 정도이며, 전체 사육두수는 30,000~32,000두 정도로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영동지부는 23명의 회원을 두고 있으며, 전체 사육두수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18,000두 이상을 본회 회원들이 사육하고 있어 실제로 영동에서 전업규모 이상으로 양돈을 하는 양돈인들은 모두 회원인 셈이라 한다. 회원들의 평균 사육두수는 700~900두이다.

영동은 양돈이 일찍 시작된 양돈의 발생지 중의 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산이 많은 골짜기라 주거지역에 가깝게 돈사를 지을 수 밖에 없으며, 금강 상류에 위치한 대청댐 상수원 지역으로 민원이 많고 규제가 심하다. 또한 고속도로와 거리가 있어 물류수송에 어려움이 있기도 해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부진한 면도 있다. 하지만 많지 않은 양돈인들이 더욱 서로를 의지하면서 신뢰감을 쌓아가는 곳이 영동지부이다.

사람 좋은 웃음으로 항상 사람에게 친근감을 주는 배상수 지부장은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 천허제일사료 대리점에 지부 사무실을 두어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항상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지부사무실은 회원들과 지역의 축산관련인들로 언제나 붐비고 있다.



여름 야유회 및 돼지고기 시식회 열어

지부에서는 매년 여름철에 한 차례씩 행정기관이나 축산관련 인사들을 초빙하고, 주위의 시민들을 상대로 야유회 겸 돼지고기 시식회를 열어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행사를 통해 지부는 지역에서의 협회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돼지고기의 참맛을 보여주어 소비를 촉진시키며, 그와 함께 회원들간의 친목을 더욱 돈독히 하고 있다.

회원들의 가족들이 모두 참석하는 이날은 이날 하루만이라도 많은 걱정과 근심을 잠시 잊어버리고 양돈인들의 그동안의 피로를 풀어버리는 날이라 한다.



▲▲매년 여름에 한차례씩의 야유회 겸 돼지고기 시식회를 가져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젊은 양돈인들이 많지 않은 영동지부에서 정영철 총무(우측)의 활동이 크다

그 외에도 매월 16일에 월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1년중 8~9회는 월례회 겸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세미나는 주로 약품회사나 사료회사에서 전문가가 나와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돼지 출하에 관해 지부는 대규모 사육 회원들이 (주)한냉에 돼지를 내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고급육 생산이 가능한 대규모 농가들이 한냉 등에 수출 규격돈으로 출하할 경우 최고 8,000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A등급이 나왔을 때에는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 7,000원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소규모 농가들은 영동 자체소비를 위해 지부에서 지정한 상인에게 좀 더 나은 가격을 받고 돼지를 팔 수 있다.

최대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지부는 다들 어려운 현실에서 회원들을 위하여 양돈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세미나를 더욱 많이 준비하고 개최할 계획이며, 전체적인 회원들의 권익보호에 계속 노력할 것이라 한다.

배상수 지부장은 “영동에는 아직 정육점 외에 축협 직판장이나 다른 어떤 육류 직판장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하고 소비자를 위하여, 정육점 가격을 견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직판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어려운 농가를 위해 장학금 등을 제공해주는 보조사업도 협회에서 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자금사정으로 어렵지만 말입니다”라며 지부의 이익사업보다는 회원들에게 유익한 사업들을 추진해 보려는 뜻을 내어보였다.

또한 젊은 양돈인이 적은 영동지부에서 지부 활동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현 정영철 총무는 최근 정부(농림부)가 모든 수태율을 20% 줄여야 한다고 발표한 것은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 강조하며, “통계에 의한 탁상공론이 아닐 수 없습니

다. 수태율을 10%만 줄여도 일단 농장에서의 고정비는 거의 일정하므로 소득은 30~40%가 줄어 듭니다. 양돈농가가 살아남질 못하죠. 물론 두수가 줄어들면 가격이 오르겠지만 그보다는 수출이나 소비촉진 등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또한 구조조정자금(경쟁력제고 사업 자금) 사용이 부실화 되었다는 쪽으로 계속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데, 다른 축종은 몰라도

양돈은 거의 시설투자로 정확히 투자되어 졌다며, “이렇게 대량생산이 가능한 체제로 엄청난 돈을 투자해 놓고 이제와서 두수를 줄이라니요? 정부 차원에서도 투자한 가치를 뽑으려면 생산효율을 최대한 이용해 이윤을 남겨야죠. 유통이나 수출을 더 적극 활성화시켜 시설투자된 만큼의 본전을 뽑길 바랍니다. 이자만 달라지 말고 양돈가가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어야죠”라 말하고 양



▲항상 사람좋은 웃음으로 회원들을 반기는 배상수 지부장

축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것을 이야기했다.

영동지부는 이후에도 회원들이 다 같이 노력으로 각종 정보교환 등을 통해 모든 회원들이 깨끗이 양돈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더 없이 친근한 회원들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산 좋고 물 좋은 지역에서 생산하는 질병없는 고급육 생산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 한다. <취재 : 조진현> **양돈**